

## Music Therapy Supervisory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Supervision Format

Kwak, Eunmi Emily\* · Jang, Binna\*\* · Yoo, Ga E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erceived supervisory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supervision. Twenty-six music therapy graduate students who enrolled in a practicum cours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received four individual and four group supervision sessions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After each supervision sess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ir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on the Supervisory Satisfactory Questionnaire(SSQ).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ratings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supervision conditions, indicating that the type of supervision would not differently affect the perception of overall supervisory satisfaction. However, a detailed analysis of ratings for each questionnaire item and comments from the participants imply that while individual supervision would be perceived to meet supervisees' individual needs more effectively, satisfaction with group supervision would be less influenced by supervisor styles. This study would provide descriptive information of perceived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type as an initial trial toward suggesting the systematic approach to the music therapy supervision form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how effective and culturally responsive supervision format would be structured to facilitate supervision process and maximize supervision outcome.

*Keywords : Music therapy supervision, Supervisory satisfaction, Individual supervision, Group supervision*

---

\* Affiliated Professor, Dep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 Lecturer, Dep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 Lecturer, Dep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bbird27@hotmail.com)

## 음악치료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슈퍼비전 만족도 조사

곽은미\* · 장빛나\*\* · 유가을\*\*\*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슈퍼비전 형태, 즉 개인 슈퍼비전과 소집단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중 임상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대상자별로 개인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이 각각 4회씩 이루어졌고, 슈퍼비전 실시 후 슈퍼비전 만족도 질문지(Supervisory Satisfactory Questionnaire)를 사용해 각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집단 슈퍼비전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조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 세부 항목 중 필요성 충족과 전체적인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자기보고 내용에 있어 개인 슈퍼비전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시간의 충분함과 슈퍼바이저의 개별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서술이 많았던 반면, 집단 슈퍼비전의 경우에는 동료들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시간 부족에 대한 서술이 많았다. 이와 같이 개인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에서 충족될 수 있는 다른 필요와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음악치료 교육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슈퍼비전 형태에 대한 고려사항이 제안되었고, 추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핵심어 : 음악치료 슈퍼비전, 슈퍼비전 만족도, 개인 슈퍼비전, 집단 슈퍼비전

---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겸임교수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강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강사 (교신저자, bbird27@hotmail.com)

## I. 서 론

슈퍼비전은 음악치료사를 양성해내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McClain, 2001). 이론과 임상을 통합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역량(competency)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임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이기 때문이다(Jackson, 2008; McClain, 2001). 치료 및 상담 영역에서 슈퍼비전은 그 분야 전체의 성장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Forinash, 2001; McClain, 2001), 보다 효과적인 슈퍼비전 모델과 접근법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슈퍼비전 과정 및 성과 요인, 즉 슈퍼비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슈퍼비전 이후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은 슈퍼비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왔다(박민경, 2010; 이승은, 정남운, 2003; Son, Ellis, & Yoo, 2007).

지금까지 슈퍼비전 성과 요인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변인은 슈퍼비전 만족도이다(김동민, 김계현, 두경희, 2008).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의 질과 자신의 기대치에 슈퍼비전이 부합한 정도를 자기 보고 형식으로 평가하게 한 슈퍼비전 만족도는 슈퍼비전을 상호적인 과정과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박혜미, 2011; Carrington, 2004; Jackson, 2008; McClain, 2001). 슈퍼비전에 대한 기대의 정도와 실제로 지각하는 정도 사이의 차이가 슈퍼비전 전반에 있어서 슈퍼바이저의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Heppner & Handley, 1981),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내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슈퍼바이저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슈퍼비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Knight, 2008; Wheeler, 2002). 슈퍼바이저의 자기 효능감이나 임상 기술 향상, 내담자 변화 등을 포함한 다른 슈퍼비전 성과 요인에 비해 슈퍼비전 만족도는 보다 즉시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김동민, 김계현, 두경희, 2008), 슈퍼비전의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홍지영, 2008).

슈퍼바이저의 스타일과 슈퍼비전 만족도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지영, 2008; Fernando & Hulse-Killacky, 2005; Friedlander & Ward, 1984).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를 대하거나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것으로, 호의적(attractive), 대인민감적인(interpersonally sensitive), 그리고 과업지향적(task-oriented)인 스타일로 구분된다(Friedlander & Ward, 1984). 홍지영(2008)은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이 또 다른 슈퍼비전 성과 요인인 자기 효능감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슈퍼바이저의 스타일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각각의 슈퍼바이저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슈퍼바이저의 대인민감성이 높거나(왕은자, 2001; Friedlander & Ward, 1984) 과업지향성이 높을 때(왕은자, 2001), 슈퍼비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김윤주(2004)의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지도나 조언보다는 지지나 나눔의 역할을 수행한

회기에 슈퍼비전 만족도가 증가했다. 또한 슈퍼바이저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슈퍼비전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바이저의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 만족도 역시 높게 평가했고, 부정적 경험으로 지각한 경우에는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역시 감소했다.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역시 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온 연구 결과이다(박혜미, 2011; 홍지영, 2008; Ladany, Hill, Corbett & Nutt, 1996; Ladany, Ellis, & Friedlander, 1999; Son, Ellis, & Yoo, 2007).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사이의 작업 동맹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수록 슈퍼비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Ladany et al., 1996). 특히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경우 슈퍼비전 만족도가 증가했다(Ladany et al., 1996; Ladany et al., 1999).

이러한 슈퍼비전 만족도 연구는 자기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관적일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지만, 슈퍼바이저의 자기 개방 등을 포함해 슈퍼비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슈퍼비전 만족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다각적인 분석과 다양화된 시도가 이루어진 건 최근에 들어서이다(김동민 외, 2008). 또한 지금까지의 만족도 연구는 슈퍼바이저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도적이었다(김동민 외, 2008; 홍지영, 2008). 이는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방식이 부각되는 개인 슈퍼비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외국에서 관련 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슈퍼비전 관련 연구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주로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는 슈퍼비전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음악치료 슈퍼바이저들이 개인 슈퍼비전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고, 개인 슈퍼비전에서 이루어지는 관찰과 피드백 제공이 가장 효과적인 슈퍼비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Tanguay, 2008). 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경제적, 현실적 효율성을 고려해 소집단 형태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유영권, 2007; 이승은, 정남운, 2003). 집단 슈퍼비전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유영권, 2007)과 더불어 집단 슈퍼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김동민, 2009; 이승은, 정남운, 2003)와 한계 역시 지적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음악치료 슈퍼비전과 관련된 기초 연구 시도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슈퍼비전 성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대한 논의를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슈퍼비전 형태에 따라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인식하는 관점과 슈퍼바이저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점(Prieto, 1996)을 고려할 때, 개인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의 성과 요인을 평가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슈퍼비전 형태와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의 과정 및 성과에 있어 서로 다른 요인이 부각됨을 보여준다. 개인 슈퍼비전에서는 개별 사례와 관련된 치료사의 행동은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Holloway & Neufeldt, 1995)와 현장 감독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Ray & Altekruise, 2000). 개인과 집단, 삼자적 슈퍼비전을 비교한 연구(Newgent, Davis, & Farley, 2005) 역시 슈퍼비전 효과와 만족도, 작업 동맹 수준에 있어 개인 슈퍼비전을 받은 후가 집단 슈퍼비전을 받은 후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집단 슈퍼비전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동료의 존재로 인해 슈퍼바이저에게 지지적인 환경이 제공되고, 야기될 수 있는 정서적 소외감이 감소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Borders, 1991; Ray & Altekruise, 2000). 관련 연구에서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은 후 슈퍼바이저가 보이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고(Borders, 1991; Ray & Altekruise, 2000; Starling & Baker, 2000), 자신감이 증가했다고(Starling & Baker, 2000) 보고되었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교육이나 멘토링을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동료와 상호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회가 부각되면서(이승은, 정남운, 2003; Newgent et al., 2005; Starling & Baker, 2000) 슈퍼바이저가 다양한 관점, 다양한 사고방식을 훈련할 수 있고(유영권, 2007; Borders, 1991; Prieto, 1996; Ray & Altekruise, 2000; Starling & Baker, 2000), 높은 수준의 개념화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Borders, 1991). 개인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 Newgent 외(2005)의 연구와 달리, Ray와 Altekruise(2000)의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형태와 상관없이 슈퍼비전 이후의 슈퍼바이저 자기 평가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슈퍼바이저의 수준 변화에 있어서도 형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바이저 수준 변화에 있어 전체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의존성-자율성(dependency-autonomy) 항목의 경우 4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슈퍼비전에 참여한 이후의 자율성 점수 증가가 다른 두 형태(즉, 개인과 8명으로 구성된 대집단)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 각각의 성과 요인에 대한 상이한 연구 결과들은 보다 효율적인 슈퍼비전 평가의 근거가 될 만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슈퍼비전 성과 비교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형태에 따른 슈퍼비전 성과 요인 연구는 현 슈퍼비전 상황을 검토하고 국내의 독특한 음악치료 환경과 교육 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슈퍼비전 형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슈퍼비전 형태, 즉 개인 슈퍼비전과 소집단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서, 음악치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개의 음악치료 임상실습 반에 포함되어 있는 총 2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음악치료학과는 총 4학기 이론 강의와 6개월의 인턴십 과정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져 있으며, 첫 학기 음악치료 기술 이론 교육에서 1학기 동안의 관찰이 실시되고, 두 번째 학기부터 임상실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음악치료 임상실습 분포는 임상실습 경험 학기 수에 따라 첫 번째 학기 실습은 레벨 1로, 두 번째 학기 실습은 레벨 2, 세 번째 학기 실습은 레벨 3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레벨 분포는 레벨 1은 10명, 레벨 2는 12명, 레벨 3은 4명으로 이루어졌다.

### 2. 연구절차 및 내용

본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10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개인, 집단 슈퍼비전 후 배포하였으며, 개인 4회, 집단 4회 총 8회의 슈퍼비전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었다. 회수는 제 3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배부된 설문지 총 208개 중 189개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 표식이 누락된 1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88개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임상실습 학생과의 일대일 슈퍼비전으로 각 학생 세션에 대한 심도있는 슈퍼비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슈퍼바이저가 임상실습 현장에서 직접 관찰 후, 세션 직후 평균 30분에서 40분간 진행되었다. 집단 슈퍼비전은 한명의 슈퍼바이저와 6~7명의 각 임상실습반의 학생들이 한 사례 당 30분 정도의 세션 녹화 비디오 시청을 한 뒤, 15분간 해당 세션에 대한 집단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때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논의의 시작(initiation), 방향수정(redirection), 촉진(facilitation), 평가(comments)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관찰력, 분석력과 통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션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이나, 행동, 언어 등을 담당 학생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임상실습 학생들 간의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세션을 진행한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시청한 다른 학생들도 간접 경험을 통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슈퍼바이저는 최소 1년에서 4년의 슈퍼비전 경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었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수퍼비전 만족도 질문지(Supervisory Satisfactory Questionnaire) (Ladany et al., 1996)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내담자 만족도 질문지(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수퍼비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질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총 8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평가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 서술란이 포함되었다. 본 설문지의 검사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이다.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습 레벨간, 실습 회기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일반적 인적사항

본 연구 설문에 참여한 음악치료학과 전공생은 26명으로 성별분포는 여성 92.3%(24명), 남성 7.7%(2명)이며, 연령대는 20대가 61.5%(1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8명), 40대 이상이 7.7%(2명)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 분포는 1차 38.5%(10명), 2차 46.1%(12명), 3차 15.4%(4명)로 이루어졌다(〈표 1〉 참조).

〈표 1〉 일반적 인적사항

정보	구분	<i>N</i>	%
성별	남자	2	7.7
	여자	24	92.3
연령	20대	16	61.5
	30대	8	30.8
	40대 이상	2	7.7
실습차수	1차	10	38.5
	2차	12	46.1
	3차	4	15.4

## 2) 학부전공

응답자의 학부전공을 음악 전공과 비음악 전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음악 전공자가 38.5%(10명), 비음악 전공자가 61.5%(16명)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표 2〉 학부 전공

정보	구분	N	%
학부 전공	음악 전공	10	38.5
	비음악 전공	16	61.5

## 2.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 만족도 전체 비교

만족도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t$ 값은 1.17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비교할 때는 개인 수퍼비전이 3.27점, 집단 수퍼비전이 3.15점으로 나타나 만족도에서 개인 수퍼비전이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표 3〉 참조).

〈표 3〉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 만족도 간 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유의확률
개인	92	3.27	.45	186	1.17	.088
집단	96	3.15	.53			

## 3.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 문항별 만족도 비교

설문지는 총 8개의 문항과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t$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총 8개의 문항 중 필요성 충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3과 전체적인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7에서 개인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확률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4〉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 문항별 만족도 간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i>t</i> 값	유의확률
문항 1	개인	92	3.28	.541	186	1.27	.207
	집단	96	3.18	.598			
문항 2	개인	92	3.30	.550	186	1.26	.211
	집단	96	3.20	.609			
문항 3	개인	92	3.12	.608	186	1.99*	.049
	집단	96	2.93	.714			
문항 4	개인	92	3.33	.557	186	1.48	.140
	집단	96	3.20	.626			
문항 5	개인	92	3.25	.567	186	1.88	.062
	집단	96	3.08	.643			
문항 6	개인	92	3.36	.546	186	.96	.337
	집단	96	3.28	.556			
문항 7	개인	92	3.33	.537	186	2.18*	.030
	집단	96	3.16	.530			
문항 8	개인	92	3.18	.533	186	.46	.649
	집단	96	3.15	.632			

\**p* < .05

#### 4. 실습 레벨 간 만족도 전체 비교 및 문항별 비교

실습 레벨 간 전체 평균 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검증 결과, 레벨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각 문항 별 검증에서는 다음 수퍼비전시 동일 수퍼바이저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항 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레벨 1 그룹이 레벨 2, 3보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레벨 2와 3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항에서는 레벨 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5〉, 〈표 6〉, 〈표 7〉, 〈표 8〉 참조).

〈표 5〉 레벨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Level 1	67	3.1	.54
Level 2	89	3.16	.51
Level 3	32	3.13	.30
합계	188	3.21	.50

〈표 6〉 레벨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검증
집단-간	1,090	2	.55	2,251	a, b, c
집단-내	44,767	185	.24		
합계	45,86	187			

〈표 7〉 레벨에 따른 문항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문항 1	Level 1	67	3.31	.63
	Level 2	89	3.20	.59
	Level 3	32	3.13	.34
	합계	188	3.23	.57
문항 2	Level 1	67	3.34	.59
	Level 2	89	3.20	.63
	Level 3	32	3.19	.40
	합계	188	3.25	.58
문항 3	Level 1	67	3.13	.67
	Level 2	89	2.92	.73
	Level 3	32	3.06	.44
	합계	188	3.02	.67
문항 4	Level 1	67	3.33	.59
	Level 2	89	3.27	.64
	Level 3	32	3.09	.47
	합계	188	3.26	.60
문항 5	Level 1	67	3.27	.59
	Level 2	89	3.09	.65
	Level 3	32	3.16	.52
	합계	188	3.16	.61
문항 6	Level 1	67	3.42	.58
	Level 2	89	3.27	.54
	Level 3	32	3.25	.51
	합계	188	3.32	.55
문항 7	Level 1	67	3.33	.56
	Level 2	89	3.20	.53
	Level 3	32	3.16	.52
	합계	188	3.24	.54
문항 8	Level 1	67	3.33	.61
	Level 2	89	3.09	.60
	Level 3	32	3.03	.40
	합계	188	3.16	.59

〈표 8〉 레벨에 따른 문항별 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사후검증
문항 1	집단-간	.89	2	.44	1.36	.259	
	집단-내	60.28	185	.33			
	합계	61.17	187				
문항 2	집단-간	.91	2	.45	1.35	.261	
	집단-내	62.34	185	.34			
	합계	63.25	187				
문항 3	집단-간	1.80	2	.90	2.03	.135	
	집단-내	82.12	185	.44			
	합계	83.92	187				
문항 4	집단-간	1.21	2	.60	1.72	.183	
	집단-내	65.02	185	.35			
	합계	66.23	187				
문항 5	집단-간	1.22	2	.61	1.65	.195	
	집단-내	68.66	185	.37			
	합계	69.89	187				
문항 6	집단-간	1.02	2	.51	1.70	.186	
	집단-내	55.83	185	.30			
	합계	56.85	187				
문항 7	집단-간	.87	2	.44	1.52	.222	
	집단-내	53.35	185	.289			
	합계	54.23	187				
문항 8	집단-간	2.86	2	1.43	4.34*	.014	a) b, c
	집단-내	61.03	185	.33			
	합계	63.89	187				

\* $p < .05$ , a = Level 1, b = Level 2, c = Level 3

### 5. 실습 회기 간 만족도 전체 비교 및 문항별 비교

실습 회기 간 만족도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검증 결과, 회기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p = .913$ ), 문항 별 검증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6. 자기보고(self-report) 서술 문항 내용 분석

수거된 총 188개의 설문지 중에 자기보고 서술형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모두 97건으로 약 51%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중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은 모두 81회, 부정적인 서술은 모두 7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9회 서술되었다(〈표 9〉 참조).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상세, 세밀, 구체 등 수퍼비전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아서, 개인에서는 17회, 집단에서 8회로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더 많은 중재 방안을 요구하거나, 중재 방안이 구체적이거나 다양해서 좋았다는 중재방안 관련 서술은 총 9회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에서 서술되는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 수퍼비전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퍼비전 시간과 수퍼바이저의 개별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서술이 많은 반면, 집단 수퍼비전에서는 시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과 동료들 간의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서술이 많았다(〈표 10〉 참조).

〈표 9〉 서술 문항 긍정적, 부정적, 요구사항 분류에 의한 분석

	개인	집단	합계
긍정적 서술	44회	37회	81
부정적 서술	0회	7회	7
요구사항	3회	6회	9
총 합계	47	50	97

〈표 10〉 서술 문항 단어 내용 분류에 의한 분석

단어 별 분류	개인	집단	합계
설명적 질 관련: 상세, 세밀, 구체, 세밀한	17회	8회	25회
중재 방안 관련	5회	4회	9회
시간 부족 관련	0회	4회	4회
시간 충분 관련	2회	0회	2회
수퍼바이저에 대한 긍정적 논평	4회	0회	4회
동료 학생의 논평의 긍정적 측면	해당사항없음	17회	17회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는 개인과 집단 슈퍼비전의 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슈퍼비전 성과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개인과 집단 슈퍼비전이 동등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결과 측정 도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슈퍼바이지의 전반적인 수준 변화에 있어 형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 Ray와 Altekruise(2000)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내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 슈퍼비전이 현실적 요구나 이론적인 요구 외에도 슈퍼비전의 실제 성과적인 측면에서 슈퍼바이지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한 개의 집단이 개인과 집단 슈퍼비전 모두를 제공받도록 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자가 각 슈퍼비전 형태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각 조건이 독립적이고, 평가자 역시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제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형태 간 비교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집수의 독립적인 두 그룹이 각각의 슈퍼비전을 제공받도록 해, 형태에 따른 슈퍼비전 만족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슈퍼비전이 진행된 회기에 따른 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따른 슈퍼바이지의 만족도나 기대치에 변화가 없음을 암시하지만, 본 연구가 한 학기 동안 이루어졌음을 고려해볼 때 슈퍼비전 만족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 변인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경험 정도, 즉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한 학기나 횟수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슈퍼바이지의 발달 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 연구(왕은자, 2001)와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임상 실습을 진행한 경험의 정도가 슈퍼바이지의 발달 수준을 예측할 수 없다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슈퍼바이지의 발달 수준이 슈퍼비전 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이 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는 형태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문항별 비교와 자기 보고형 서술 문항 분석 결과는 슈퍼비전 형태에 따라 충족되는 슈퍼비전의 필요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개인 슈퍼비전의 경우, 슈퍼비전 만족도 설문지 문항 중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켰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른 6개의 문항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개인 슈퍼비전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개인 슈퍼비전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이슈를 면밀히 고려할 수 있어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Holloway & Neufeldt, 1995; Ray & Altekruise, 2000). 자기보고 서술형 문항 분석 결과 역시 개인 슈퍼비전에서는 슈퍼비전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적 제한이 적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슈퍼비전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의 자기 보고에서 슈퍼바이저 외에 동료와의 토의를 통해 피드백이 제공되고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역시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Borders, 1991; Newgent et al. 2005; Ray & Altekruze, 2000; Starling & Baker, 2000). 반면 개인에게 할당되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개별화되지 않은 피드백 등의 문제가 서술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각 슈퍼비전 형태가 가지는 한계점이 다른 슈퍼비전 형태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슈퍼비전 만족도는 슈퍼비전 성과에 대한 즉시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임상 기술 변화나 내담자 변화 등의 다른 성과 요인에 비해 내담자나 임상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반면, 슈퍼바이저의 평가에 의존해 주관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김동민 외, 2008). 본 연구 역시, 슈퍼바이저들이 보고한 결과에 일관적인 경향이 나타나긴 하지만, 보다 체계화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슈퍼비전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 슈퍼바이저의 스타일, 슈퍼바이저의 발달 수준 등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다층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슈퍼비전 만족도와 함께 다양한 과정 및 성과 요인을 고려하는 다각화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슈퍼비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임상 기술 변화, 슈퍼바이저의 자기 효능감 등과 같은 다양한 성과 변인과 슈퍼비전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후 연구를 통해 각 슈퍼비전 형태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집수가 적어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개인 슈퍼비전과 집단 슈퍼비전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의 문화적,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한 슈퍼비전 형태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성과 경제적 효율성, 슈퍼비전 형태에 따른 각각의 슈퍼비전 성과나 이점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형태의 슈퍼비전이 공존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슈퍼바이저의 발달 수준이나 개인적 필요 등을 고려해 개별화된 슈퍼비전 형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개인과 집단의 슈퍼비전의 비율, 집단 슈퍼비전의 이상적인 시간, 그리고 집단 슈퍼비전에서 한 그룹 당 학생 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 참 고 문 헌

- 김동민, 김계현, 두경희 (2008). 슈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9(3), 1007-1021.
- 김동민 (2009). 음악치료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과 평가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60-85.
- 김윤주 (2004). 슈퍼바이저의 과업 및 기능수행과 상담수련생의 슈퍼비전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민경 (2010).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조사연구. **음악치료 교육연구**, 7(2), 47-63.
- 박혜미 (2011).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분석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8(1), 61-81.
- 왕은자 (2001). 소집단 슈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권 (2007). 집단 슈퍼비전의 이해와 활용에 관하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43-170.
-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3), 21-47.
- 홍지영 (2008).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89-1504.
- Borders, L. D. (1991). A systematic approach to pee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3), 248-252.
- Carrington, G. (2004). Supervision as a reciprocal learning process.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20(1), 31-42.
- Fernando, D. M., & Hulse-Killacky, D. (2005). The relationship of supervisory styles to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master's-level counseling studen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4(4), 293-304.
- Forinash, M. (Ed.).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Gilsum, NH: Barcelona.
- Friedlander, M. L., & Ward, L. G.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ory style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41-557.
- Heppner, P. P., & Handley, P. G. (1981). A study of the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in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437-444.
- Holloway, E. L.,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2), 207-213.

- Jackson, N. A. (2008). Professional music therapy supervision : A survey. *Journal of Music Therapy, 45*(2), 192-216.
- Knight, A. J. (2008). Music therapy internship supervisors and preinternship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questionnaires. *Journal of Music Therapy, 45*(1), 75-92.
- Ladany, N., Ellis M. V., & Friedlander, M. L. (1999).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traine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 447-455.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10-24.
- McClain, F. J.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A review of literature. In M. Forinash (Ed.), *Music therapy supervision* (pp. 9-17). Gilsum, NH: Barcelona.
- Newgent, R. A., Davis, H. J., & Farley, R. C. (2005). Perceptions of individual, triadic, and group models of supervision : A pilot study. *Clinical Supervisor, 23*(2), 65-79.
- Prieto, L. R. (1996). Group supervision: Still widely practiced but poorly understood.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4), 295-307.
- Ray, D., & Altekruise, M. (2000). Effectiveness of group supervision versus combined group and individual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1), 19-30.
- Son, E. J., Ellis, M. V., & Yoo, S. K. (2007). The relations among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role difficulties, and supervision satisfaction: A cross-cultural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6*(2), 161-182.
- Starling, P. V., & Baker, S. B. (2000). Structured peer group practicum supervision: Supervisees' perceptions of supervision theor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9*(3), 162-176.
- Tanguay, C. L. (2008). Supervising music therapy interns: A survey of AMTA national roster internship directors. *Journal of Music Therapy, 45*(1), 52-74.
- Wheeler, B. L. (2002). Experiences and concerns of students during music therapy practica. *Journal of Music Therapy, 39*(4), 274-304.

- 게재신청일: 2012. 3. 29.
- 수정투고일: 2012. 4. 20.
- 게재확정일: 2012. 5. 01.